2019학년도 경찰대학 1차시험 (국 어)

※ 총 12쪽 45문항(2점 35문항, 3점 10문항)입니다. 각 문항의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1. 다음 중 어법에 맞고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① 영수는 웃으면서 다가오는 다희의 손을 잡았다.

② 이 샴푸는 두피 건강과 비듬에 좋은 제품입니다.

③ 동일 하자로 고장 발생 시 3회까지는 무료로 수리해 드립니다.

④ 체중 관리를 위해 주중에는 헬스를, 주말에는 북한산에 오른다.

⑤ 서울을 떠나 대전을 경유한 열차가 곧 우리 역에 도착되겠습니다.

2. 구어체를 문어체로 수정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었단 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
→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

② 수많은 군중들이 뭘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
→ 수많은 군중들이 무얼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

③ 대통령하고 사무총장이랑 만나서 비밀리에 의제를 상정했다.
→ 대통령하고 사무총장이 만나서 비밀리에 의제를 상정했다.

④ 끼니때가 되면 식탐이 많은 그는 늘 자기가 먼저 먹을라고 했다.
→ 끼니때가 되면 식탐이 많은 그는 늘 자기가 먼저 먹을려고 했다.

⑤ 김 과장은 최 대리보고 점심시간 전까지 보고서를 내라고 지시했다.
→ 김 과장은 최 대리에게 점심시간 전까지 보고서를 내라고 지시했다.

3. <보기>를 바탕으로 모음 변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국어의 단모음 분류표]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ㅣ	ㅟ	ㅡ	ㅜ
중모음	ㅔ	ㅚ	ㅓ	ㅗ
저모음	ㅐ		ㅏ	

① '그리고 > 그리구'에서의 모음 변동은 입술 모양만 달라지는 변동이군.

② '지팡이 > 지팽이'에서의 모음 변동은 혀의 전후 위치만 달라지는 변동이군.

③ '블 > 불'에서의 모음 변동은 혀의 전후 위치와 입술 모양이 달라지는 변동이군.

④ '거죽 > 가죽'에서의 모음 변동은 혀의 높낮이와 입술 모양이 달라지는 변동이군.

⑤ '윗어른 > 웃어른'에서의 모음 변동은 혀의 전후 위치와 입술 모양이 달라지는 변동이군.

4.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제2절 구개음화

제6항 'ㄷ, ㅌ' 받침 뒤에 ⓐ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 맏이	마지	ⓒ	할치다
해돋이	해도지	걷히다	거치다
굳이	구지	닫히다	다치다
ⓓ 같이	가치	묻히다	무치다
ⓔ 끝이	끄치	ⓕ	훑치다

① ⓐ는 모두 단어가 될 수 없는 형태소에 해당하는군.

② ⓑ와 ⓒ는 어근이 ⓐ와 결합하여 모두 새로운 품사로 바뀐 것이군.

③ ⓒ에 들어갈 어형은 접미사 '-이-'가 결합해 생긴 것이군.

④ ⓓ, ⓔ를 보니 선행 음절의 받침이 같아도 구개음은 다르게 실현되는군.

⑤ ⓕ에 들어갈 어형으로는 '훑히다'가 있군.

5.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어떤 형태소가 그 주위 환경에 따라 음상(音相)이 달라지는 현상을 교체(交替)라고 하며, 교체를 통해 원래의 모습과 다르게 나타나는 형식들 각각을 그 형태소의 이형태(異形態)라고 한다. 가령, '믿다'의 '믿-'의 경우, '믿고, 믿어'에서는 [믿-]으로 나타나나 '믿는다'에서는 [민-]으로 나타난다. 즉, '믿-'은 {믿-}과 {민-}을 그 이형태로 갖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값이, 값도, 값만'과 같은 경우의 '값'은 각각 {㉠, ㉡, ㉢}의 이형태를 갖는다.

	㉠	㉡	㉢
①	갑	갑	갑
②	갑	갑	감
③	갑	값	감
④	값	갑	감
⑤	값	감	갑

6.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	㉢
빨랫줄[빨래쭐/빨랟쭐]	빨래집게[빨래집께]	빨래터[빨래터]

※[ ]는 표준 발음법에 따른 발음임.

① ㉠, ㉡, ㉢은 모두 복합어에 속한다.
② ㉠, ㉡, ㉢은 모두 직접 구성 요소 중 앞의 요소가 뒤의 요소를 꾸민다.
③ ㉠, ㉡에는 사잇소리 현상으로 인한 경음화가 존재한다.
④ ㉠, ㉢을 이루는 각각의 직접 구성 요소들은 모두 어근이다.
⑤ ㉡을 이루는 구성 요소의 총수는 세 개다.

7. <보기>의 ㉠에 해당하는 단어가 쓰인 문장이 아닌 것은?

<보기>

우리말의 명사형 어미 '-ㅁ/음'과 '-기'는 용언 어간에 붙어 그 용언이 문장에서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만든다. 그런데 파생 접미사 중에도 '-ㅁ/음'과 '-기'가 있어서 ㉠ 용언의 명사형과 파생명사가 같은 모양이 되어 그 둘을 혼동하기 쉽다.

① 자신을 믿음으로써만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
② 중임을 맡기기에는 아직 그가 젊음도 고려해야만 한다.
③ 영수는 선하게 웃음으로써 자신을 비난하는 이들을 멋쩍게 했다.
④ 과묵한 그는 상대의 약점을 잘 앎에도 불구하고 절대 내색하지 않았다.
⑤ 남에게 진 신세에 대하여 적절한 갚음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8. <보기>의 특성을 가진 단어가 사용된 문장만으로 짝지은 것은?

<보기>

가. 선행 용언과 연결되어 그 뜻을 보충한다.
나. 선행 용언의 어미는 대체로 '-아/어, -게, -지, -고'로 한정되나 '-ㄴ/은가, -ㄹ/을까, -(으)면' 등이 오기도 한다.

① 밖의 날씨가 매우 더운가 보다.
이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보렴.
② 공을 차다 장독을 깨 먹었다.
여름철에는 음식물을 잘 익혀 먹자.
③ 막내 동생이 참 예쁘게 생겼다.
한겨울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구나.
④ 이것 말고 저것을 주시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얻고 말겠다.
⑤ 이것 좀 너희 아버지께 가져다 드리렴.
나는 주말마다 어머니 일을 거들어 드린다.

9.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과 ㉡에 해당하는 <자료>의 용례들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우리는 어떤 대상을, 그것의 속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말을 빌려서 표현하기도 한다. 가령, '손이 모자라다.'의 '손'은 ㉠ 대상의 일부로 그 전체를 나타낸 것이며, 우리 민족을 '흰옷'으로 표현한 것은 ㉡ 대상과 관련된 속성으로 그 대상 자체를 나타낸 것이다.

<자료>

가. 주전자가 끓는다.
나. 그 친구를 전화번호부 속에서 찾아냈다.
다. 그 대학에는 훌륭한 두뇌들이 모여 있다.
라. 이번 전국 대회에서는 우리 학교가 우승했다.
마. 당시 청년들은 군홧발에 짓밟히면서도 자유를 외쳤다.

	㉠	㉡
①	가, 나	다, 라
②	나, 다	마
③	다	마
④	다, 마	가
⑤	라	나, 마

10. <보기>를 참고할 때 ㉠과 같은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무더운 여름날 선생님께서 창문이 닫혀 있는 교실에 들어오셔서 학생들에게 "덥구나."라고 하셨다. 이때 발화된 문장은 실제로 '방이 덥다'는 평서문의 의미뿐만 아니라 '창문을 열라'는 '명령'의 의미로도 해석된다. 따라서 이 발화를 들은 누군가가 창문을 열 수도 있다. 이렇듯 ㉠ 담화 상황에서는 발화된 문장의 유형과 그 발화의 의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① 상황 : 실수를 저지른 신입 사원에게 상사가
발화 : 다음번에는 잘 해.
② 상황 : 친구와 놀다가 늦게 들어온 아이에게 어머니가
발화 : 도대체 지금 몇 시니?
③ 상황 : 비 오는 날 어머니께서 현관문에 둔 우산을 가리키며
발화 : 비가 많이 오는구나.
④ 상황 : 계산대 앞에서 주머니를 뒤적이며 친구에게
발화 : 어, 지갑을 까먹고 안 가지고 왔네.
⑤ 상황 : 밤늦게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있는 룸메이트에게
발화 : 잠 좀 자자.

11. <보기>의 ㉠~㉤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 곶 ㉡ 됴코 여름 하ᄂᆞ니 (제2장)
- 내히 이러 ㉢ 바ᄅᆞ래 가ᄂᆞ니 (제2장)
- ㉣ 狄人ㅅ서리예 ㉤ 가샤 (제4장)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① ㉠은 팔종성법이 철저하게 지켜진 예이다.

② ㉡은 축약을 통한 음절 수 감소가 발생한 예이다.

③ ㉢은 분철 표기가 준수된 예이다.

④ ㉣은 주격 조사로 'ㅅ'이 실현된 예이다.

⑤ ㉤은 동사 어간에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가 결합한 것이다.

[12~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취향이 어느 순간 나의 취향이 되어서 그가 좋아하는 물건을 좋아하거나 즐겨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부르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 중요한 물건을 살 때 인터넷에서 타인의 경험담을 참조하거나 그 분야에 능통한 주변인을 곁눈질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타인이 개입되어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늘 타인을 모방함으로써 자신의 욕망을 채운다.

이렇듯 타인의 욕망에 대한 모방에서 우리의 욕망이 생겨난다는 점을 주목한 이가 르네 지라르(René Girard)이다. 그는 ㉠ 인간이 갖는 욕구와 욕망을 철저하게 분리하였는데, 그에게 욕구는 본능적으로 실제 대상을 향하는 실질적인 것인 반면, 욕망은 실제 대상 그 자체보다는 그 대상과 관련된 것을 향하는 관념적인 것이다. 이러한 구분에 입각하여 지라르가 전개한 모방 이론은 욕망의 구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 줌으로써 인간 내면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개척했다. 특히 이 이론은 인간 내면을 탐구하는 심리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프로이트의 심리학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보인다. 즉 욕망이 주체의 타고난 본능에서 나온다거나, 욕망을 대상에서 나오는 자연 발생적인 것으로 보는 프로이트의 시각이 주된 비판의 대상이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차이는 프로이트가 욕망의 주체 내부에서 나오는 리비도를 중시했던 반면, 지라르는 욕망하는 이의 모방 행위 그 자체를 중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에 입각하여 지라르는 어떤 이가 주체적으로 특정 대상을 욕망한다고 믿는, 즉 '자발적 욕망'이라는 환상을 믿는 것은 바로 프로이트의 '낭만적 거짓'에 현혹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지라르는 대상을 소유하거나 밀접하게 관련을 맺는 ㉡ 중개자를 통해서만이 욕망의 주체가 대상을 욕망할 수 있다고 보는 '비자발적 욕망'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지라르는 프로이트 심리학에서 벗어나 '모방'을 중심으로 인간 내면을 분석하는 '새로운 심리학'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이러한 주장은 자연스럽게 '개인'과 '자아'의 개념을 수정하는 데에 이른다. 즉, "심층적으로 보면 나의 비밀과 타인의 비밀 사이의 차이는 없다. 한 사람의 심층적 자아는 보편적 자아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다.

이러한 지라르의 모방 이론을 임상에 적용해 큰 효과를 입증한 정신의학자 장-미셸 우구를리엥(Jean-Michel Oughourlian)은 고정된 것으로 간주되던 과거의 '자아' 개념을 수정한다. 그는 "진정한 심리학적 사실은 한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대칭적 교환과 만남의 한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지속적 창조 행위의 결과가 우리의 자아"라고 주장한다.

그가 생각하는 인간은 타인과의 만남에 영향을 받는 존재다. 이 영향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모방'이다. 심리를 변화시키는 움직임을 욕망이라고 보는 그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방적 욕망의 집결체가 바로 우리의 '자아'라고 인식한 것이다. 그런데 알다시피 인간 욕망은 새롭게 갱신되는 가변체이다. 그러므로 욕망에 의해 만들어지는 존재인 자아도 고정된 것이 아니다. 자아는 궁극적으로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운동 상태에 있다. 자아는 출생 시부터 결정된 것이 아니다. 기존 심리학과 갈라서게 되는 결정적 지점이 바로 이곳이다.

자아가 더 이상 고정 불변의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은 한 사람에게 하나의 자아만이 존재한다는 통념도 수정하게 한다. 다시 말해 우리의 욕망과 마찬가지로 욕망의 산물인 자아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매번 새롭게 주조되기에 인간에게는 여러 개의 자아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아울러 우리가 어쩌면 통념적으로 '자아'라 칭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일 뿐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12.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라르는 개인의 자아가 심층적 차원에서는 보편성을 띨 수 있다고 주장했다.

② 우구를리엥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인간이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③ 주체적으로 특정 대상을 욕망한다고 믿는 것은 프로이트의 이론에 기댄 것이다.

④ 지라르는 주체와 욕망하는 대상의 직접 상호작용을 통해 욕망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⑤ 우구를리엥은 자아가 모방을 통해 고정불변의 것이 아닌 유동적인 것이 된다고 보았다.

13. ㉠을 사례를 통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물을 찾는 것은 욕망에 기인한 것이다.

② 식사 시간에 메뉴를 꼼꼼히 선택하는 행위는 욕구에 기인한 것이다.

③ 칸트를 흠모하는 철학도가 매일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은 욕망에 기인한 것이다.

④ 유년 시절의 농촌 생활을 추억하기 위해 전원주택에 살고자 하는 것은 욕구에 기인한 것이다.

⑤ 텔레비전에서 좋아하는 연예인이 입은 옷을 보고 그것을 구매하려는 것은 욕구에 기인한 것이다.

14. <보기>를 바탕으로 ㉡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욕망의 중개자는 영화의 주인공일 수도 있고 예술이거나 가치와 종교 혹은 정치적 신념 같은 것일 수도 있다. 중개자를 스승이나 영감을 주는 멘토로 인정할 때 우리는 중개자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런데 욕망의 중개자와 주체와의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중개자가 주체의 일상 안에 들어온 경우에는 존경의 마음이 약화된다. 특히 중개자를 통해 욕망하던 대상이 제한적일 경우, 주체는 중개자를 존경의 대상이 아닌 경쟁자나 적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① 주체가 ㉡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할 때 자신의 모방 행위를 중단하겠군.

② 욕망하는 주체와 ㉡의 심리적 거리감은 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군.

③ ㉡이 주체의 일상 안에 들어온 경우 욕망의 주체는 대상이 희소성을 띨수록 ㉡과 갈등 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높겠군.

④ ㉡과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욕망하던 대상에 대해 주체가 갖는 욕망은 점점 감소하겠군.

⑤ 주체가 ㉡을 자신에게 영감을 주는 대상으로 인식하면 ㉡과 경쟁 관계를 형성하겠군.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노주인(老主人)의 장벽(腸壁)에
무시(無時)로 ㉠ 인동(忍冬) 삼긴 물이 나린다.

㉡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 붉고,

구석에 그늘 지어
㉢ 무가 순 돋아 파릇하고,

㉣ 흙냄새 훈훈히 김도 사리다가
바깥 풍설(風雪) 소리에 잠착하다.

산중(山中)에 책력(冊曆)도 없이
㉤ 삼동(三冬)이 하이얗다.

- 정지용, 「인동차(忍冬茶)」

(나)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
지 혼자 무력(無力)함에 부대끼고 부대끼다가
어디 한군데로 나자빠져 있다가
알맞은 바람 만나
살며시 더운 가슴
그 사랑을 알겠느냐

오가는 발길들 여기 멈추어
밤새도록 우는 울음을 들었느냐
지 혼자서 찾는 길이
여럿이서도 찾는 길임을
엄동설한 칼별은 알고 있나니
무르팍 으깨져도 꽃피는 가슴
그 가슴 울림 들었느냐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
삭고 삭아 부서지는 일 보았느냐
지가 죽어 썩어 문드러져
우리 고향 좋은 물 만나면
덩달아서 함께 끓는 마음을 알겠느냐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해 솟는 얼굴도 되는 죽음을 알겠느냐

아 지금 감춰 둔 누룩 뜨나니
냄새 퍼지나니

- 이성부, 「누룩」

(다)
소나무에 호박넝쿨이 올랐다
씨앗 묻은 일도 모종한 일도 없는 호박이다

장정 셋의 하루 품을 빌려 이른 봄에 옮겨온 소나무,
뜬금없이 올라온 호박넝쿨이 솔가지를 덮쳐갔다
일개 호박넝쿨에게 소나무를 내줄 수는 없는 일
줄기를 걷어내려다 보니 애호박 하나가 곧 익겠다

싶어, **애호박 하나만 따고 걷어내기로 맘먹**었다.
마침맞은 애호박 따려다 보니 넝쿨은 또 애호박을 낳고
고놈만 따내고 걷으려니 **애호박은 또 애호박을 내놓는다**
소나무조차 솔잎 대신 호박잎을 내다는가, 싶더니 애호

호박넝쿨은 기어이 소나무를 잡아먹고 호박나무가 되었다

- 박성우, 「애호」

15.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가)는 초연한 자세로 현실을 견뎌 내고자 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② (나)는 자기희생과 타자와의 연대를 통해, 힘든 현실을 이겨 나가려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③ (다)는 이질적인 대상 사이의 관계를 통해, 경계에 길들여진 인간의 의식을 반성하게 하고 있다.

④ (가)와 (나)는 자연의 생명력에 빗대어, 시련과 고통에 대응하는 삶의 자세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⑤ (가)와 (다)는 자연의 변화가 눈앞의 현실과 지향하는 현실 사이의 대립을 초래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16. 시적 맥락을 고려할 때, ㉠~㉤ 중 의미가 가장 <u>이질적인</u>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17. (나),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나)와 (다)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
② (나)와 (다)는 두 개의 대상 사이의 대립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나)와 (다)는 대상의 외적 모습에서 화자의 내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④ (나)와 달리 (다)는 반복적인 구조를 통해 주제 의식을 심화하고 있다.
⑤ (다)와 달리 (나)는 대상의 변화를 비판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8.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의문형 진술을 통하여 제재의 특징과 의미를 환기하고 있다.
② 다가올 상황을 가정하여 제재의 부정적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③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상징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④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⑤ 대상을 의인화하여 현실에 대한 알레고리적 기능을 드러내고 있다.

19.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기>

박성우의 시는 자연과 생명의 공동체적 가치에 깊은 애착을 드러낸다.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탐구는 자본과 문명에 순응하는 인간 중심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문제의식으로 심화된다. 즉 자연과 우주의 섭리 앞에서 모든 인간적 시점을 뒤로한 채 자연 그 자체를 주체로 세움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경계를 넘어선 본연의 생명성을 보여 주고자 하는 것이다.

① "뜬금없이 올라온 호박넝쿨이 솔가지를 덮쳐갔다"는 데서, 자연 그 자체를 주체로 세움으로써 인간적 시점을 성찰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 주는군.
② "일개 호박넝쿨에게 소나무를 내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인간 중심의 문화에 대한 화자의 초월적 태도를 보여 주는군.
③ "애호박 하나만 따고 걷어내기로 맘먹"어 보지만, "애호박은 또 애호박을 내놓는다"에서, 인간의 마음으로는 거스르기 힘든 것이 자연의 섭리라는 화자의 생각을 보여 주는군.
④ "소나무조차 솔잎 대신 호박잎을 내다는가, 싶더니"에서, 자연이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한다는 화자의 생각을 보여 주는군.
⑤ "호박넝쿨은 기어이 소나무를 잡아먹고 호박나무가 되었다"는 데서, 화자는 자연 본연의 생명성이 경계와 대립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군.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과 도덕은 인간의 올바른 행위를 위한 규범이다. 양자는 개념상 구별이 가능하지만 서로 합치되는 부분이 많으며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도덕은 법의 타당성의 근거인 동시에 목적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법질서는 도덕적 가치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몇 가지 이론이 제시된 바 있다.

우선 법과 도덕은 상호 보완 관계를 지녀야만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 실제로 법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는 일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공통된 부분을 우리는 흔히 '윤리'나 '예(禮)'라고 지칭하곤 한다. "도덕이 결여된 법은 공허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법은 도덕을 바탕으로 할 때 강력한 규범성을 갖는다. 반대로 도덕적 ⓐ <u>지지</u>를 받지 못하는 법은 법으로서의 가치와 타당성이 적어 그 존립의 기초 또한 약해진다. 사회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도덕에 저촉되는 법이 제정될 때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모든 도덕이 법제화될 수는 없고, 모든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 역시 온당하지 않다.

그래서 ㉠ <u>옐리네크</u>(G. Jellinek)는 법과 도덕을 포함 관계로 설정하였다. 그는 법은 도덕 가운데에서 특별히 그 실현을 강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고 보아, 법은 '도덕의 최소한(ethisches Minimum)'이라는 말을 남겼다. 이와 달리 ㉡ <u>슈몰러</u>(G. Schmoller)는 법의 효력을 중시하여, 법에는 강제력이 있으므로 도덕보다는 실효성이 확고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도덕적 가치의 실현이 법을 통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법은 '도덕의 최대한(ethisches Maximum)'이라 하였다. 법과 도덕의 관계를 바라보는 측면에 따라 이렇듯 상이한 견해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슈몰러의 견해와 같이 법을 통해 도덕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그러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법 ⓑ <u>자체</u>가 도덕을 해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도덕적 요구를 법으로 시행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라도 이는 자발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참된 이웃 사랑이 실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때로는 그 법 때문에 이웃 간에 위선과 역겨움이 야기될 수도 있다. 1794년에 제정된 프로이센의 '일반란트법(Allgemeines Landrecht)' 제179조에서는 부부가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까지 법제화하였으나 강제규범으로 효력이 있는지는 의문시된다. 이렇듯 도덕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법제화한다고 해서 그 법이 모두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 <u>라드브루흐</u>(G. Radbruch)는 "법은 도덕을 실현할 가능성과 동시에 부도덕을 실현할 가능성도 지닌다."라고 지적하였다. 1919년에 제정된 미국의 '금주법(Prohibition Act)'은 도덕적 ⓒ <u>차원</u>의 문제를 법의 강제력으로 실현하려 하였으나 법으로서의 규범적 기능을 상실하여 사문화된 대표적 사례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도덕적 ⓓ <u>허용</u> 대상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법과 도덕은 각각 고유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시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만, 라드브루흐가 지적했듯이 "법의 도덕적 세계로의 귀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도덕규범의 법의 세계로의 귀화"를 동시에 지향하여 법과 도덕이 서로 보완 관계를 지닐 수 있도록 모색함으로써 강력한 규범성을 확보할 수는 있다. 도덕은 법의 목적이 되는 동시에 법에 의무를 주는 효력의 ⓔ <u>기초</u>가 되는 까닭이다.

다시 말하면, 법의 효력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지만, 법은 도덕적으로 승인될 때 더욱 강력한 규범이 될 수 있다. 법과 도덕의 개념은 각각 구별되더라도 양자는 사회 규범으로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한다는 공통의 목적과 사명을 갖고 있으므로, 상호 의존하고 보완하여 올바른 사회적 가치와 법규범의 실현에 이바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20.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이론들을 제시하고 각각의 이론이 지닌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② 이론들을 설명하면서 각각의 이론에 관련된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③ 각각의 이론이 등장한 시대적 배경과 연관 지어 이론들을 개관하고 있다.
④ 이론들을 검토한 후 특정 이론을 바탕으로 필자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⑤ 이론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이전 이론이 후대 이론으로 대치되는 경과를 서술하고 있다.

21. ㉠~㉢의 견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은 ㉡에 비해 법 규범의 제정에 보다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이다.
② ㉡은 ㉢에 비해 법 규범의 효과에 대해 확신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다.
③ ㉢은 ㉠과 달리 법과 도덕의 영역을 포함 관계로만 생각하지는 않는다.
④ ㉠은 ㉡과 달리 법이 도덕에 비해 강제성과 실효성이 높다는 데에 회의적이다.
⑤ ㉠, ㉡, ㉢은 모두 법과 도덕이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2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기>

㉮ <u>프랑스 형법 제63조</u>는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아니함에도 위험에 처해 있는 자를 구조하지 아니한 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강도를 만나 죽을 위기에 처한 낯선 사람을 한 사마리아인이 돌보아 주었던 일화에 착안하여 이 법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한편 우리 헌법 재판소는 2015. 2. 26. ㉯ <u>간통죄 위헌 결정</u>에서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형법 제241조를 위헌이라 결정한 바 있다. 헌법 재판소는 부부 간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비도덕적이기는 하나 법으로 처벌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① ㉮는 도덕적 가치의 실현이 법을 통해 가능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는군.
② ㉮는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의 제179조나 미국의 '금주법'과 그 취지가 상통하는군.
③ ㉯는 도덕의 영역이 법의 영역보다 기본적으로 더 크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는군.
④ ㉯는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 반드시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보는 취지이군.
⑤ ㉮와 ㉯는 모두 도덕과 법이 공통의 목적과 사명을 띠고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는군.

23. ⓐ~ⓔ의 문맥적 의미와 일치하는 것은?

① ⓐ: 붕괴 위험에 처한 건물의 <u>지지</u>를 위해서 인부들이 철골 콘크리트로 구조물을 구축하고 있다.
② ⓑ: 그 <u>자체</u>는 특이한 것이었지만 현실성이 없었다.
③ ⓒ: 기하학에서는 3차원인 입체 도형을 넘어서는 무한 <u>차원</u>까지가 고려된다.
④ ⓓ: 우리 팀은 선제골의 <u>허용</u>에도 굴하지 않고 전열을 정비해 반격에 나섰다.
⑤ ⓔ: 헌법의 <u>기초</u>는 제헌 국회의 가장 중요한 첫 임무였다.

[24~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니리>
한 군사 나서며,

<중모리>
[A] "여봐라, 군사들아, 이내 설움을 들어라. 너 내 이 설움을 들어 봐라. 나는 남의 오대 독신으로 어려서 장가들어 근 오십이 장근(將近)토록 슬하에 일점혈육이 없어 매월 부부 한탄 어따 우리 집 마누라가 온갖 공을 다 들일 제, 명산대찰 성황신당, 고묘총사, 석불 보살 미륵 노구맞이 집짓기와 칠성 불공, 나한 불공, 백일산제, 신중맞이, 가사시주, 연등시주, 다리 권선 길닦기며, 집에 들어 있는 날은 성조조왕, 당산천룡, 중천군웅 지신제를 지극 정성 드리니, 공든 탑이 무너지며 심든 남기가 꺾어지랴. 그달부터 태기(胎氣)가 있어 석부정부좌(席不正不坐)하고 할부정불식(割不正不食)하고 이불청음성(耳不聽淫聲) 목불시악색(目不視惡色), 십 삭(十朔)이 절절 찬 연후에 하루는 해복 기미가 있던가 보더라. 아이고, 배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혼미(昏迷) 중 탄생하니 딸이라도 반가울데 아들을 낳었구나. 열 손에다 떠받들어 땅에 누일 날 전혀 없어 삼칠일(三七日)이 지나고 오륙 삭이 넘어 발바닥에 살이 올라 터덕터덕 노는 모양, 방긋방긋 웃는 모양, 엄마 아빠 도리도리, 쥐암잘강 섬마둥둥, 내 아들 옷고름에 돈을 채여 감을사 껍질 벗겨 손에 주며 주야 사랑 애정한 게 자식밖에 또 있느냐. 뜻밖에 이 한 난리, '위국땅 백성들아, 적벽으로 싸움 가자. 나오너라.' 외는 소리, 아니 올 수 없더구나. 사당 문 열어 놓고 통곡재배 하즉한 후 간간한 어린 자식 유정한 가족 얼굴 안고 누워 등치며, 부디 이 자식을 잘 길러 나의 후사(後嗣)를 전해 주오. 생이별 하직하고 전장에를 나왔으나 언제 내가 다시 돌아가 그립던 자식을 품에 안고 '아가 응아' 업어 볼거나. 아이고, 내 일이야."

<아니리>
이렇듯이 설리 우니 여러 군사 꾸짖어 왈, "어라, ㉠ <u>**이놈 자식 두고 생각는 정 졸장부의 말이로다**</u>. 전장에 너 죽어도 후

사는 전하겠으니 네 설움은 가소롭다." 또 한 군사가 나서면서,

<중모리>

"이내 설움 들어 봐라. 나는 부모 일찍 조실(早失)하고 일가친척 바이 없어 혈혈단신(孑孑單身) 이내 몸이, 이성지합(二姓之合) 우리 아내 얼굴도 어여쁘고 행실도 조촐하야 종가대사(宗家大事) 탁신안정(托身安定) 떠날 뜻이 바이 없어 철 가는 줄 모를 적에, 불화병 외는 소리 '위국 땅 백성들아, 적벽으로 싸움 가자.' 웨는 소리 나를 끌어내니 아니 올 수 있든가. 군복 입고 전립 쓰고 창을 끌고 나올 적에, ㉡ **우리 아내 내 거동을 보더니 버선발로 우루루루 달려들어 나를 안고 엎더지며**, '날 죽이고 가오, 살려 두고는 못 가리다. 이팔홍안 젊은 년을 나 혼자만 떼어 놓고 전장을 가랴시오.' 내 마음이 어찌 되것느냐. 우리 마누라를 달래랄 제, '허허 마누라 우지 마오. 장부가 세상을 태어나서 전장출세(戰場出世)를 못하고 죽으면 장부 절개가 아니라고 하니 우지 말라면 우지 마오.' 달래어도 아니 듣고 화를 내도 아니 듣더구나. ㉢ **잡았던 손길을 에후리쳐 떨치고 전장을 나왔으나, 일부지전장 불식이라.** 살아가기 꾀를 낸들 동서남북으로 수직(守直)을 허니, 함정에 든 범이 되고 그물에 걸린 내가 고기로구나. 어느 때나 고국을 갈지, 무주공산 해골이 될지, 생사(生死)가 조석(朝夕)이라. 어서 수이 고향을 가서 그립던 마누라 손길을 부여잡고 만단정회(萬端情懷) 풀어 볼거나. 아이고, 아이고, 내 일이야."

[중략]

<아니리>

창황분주 도망을 갈 제 새만 푸루루루 날아나도 복병인가 의심하고, 낙엽만 펴뜩 떨어져도 추병(追兵)인가 의심하여, ㉣ **엎어지고 자빠지며 오림산 험한 산을 반생반사 도망을 간다.** 조조 가다 목을 움쑥움쑥하니 정욱이 여짜오되,

"승상님 무게 많은 중에, 말 허리에 목을 어찌 그리 움치시나이까?"

"야야, 화살이 귀에서 앵앵하며 칼날이 눈에서 번뜻번뜻하는구나."

"이제는 아무것도 없사오니 목을 늘여 사면을 살펴보옵소서."

"야야, 진정으로 조용하냐?"

[B]
조조가 목을 막 늘여 좌우 산천을 살펴보려 할 제, 의외에 말 굽통 머리에서 메추리 표루루루 하고 날아 나니 조조 깜짝 놀라,

"아이고 정욱아. 내 목 떨어졌다. 목 있나 봐라."

"눈치 밝소. 조그만한 메추리를 보고 놀랄진대 큰 장끼를 보았으면 기절할 뻔하였소그려."

조조 속없이,

"야 그게 메추리냐? 그놈 비록 자그마한 놈이지만 냄비에다 물 붓고 갖은 양념하여 보글보글 볶아 놓으면 술안주 몇 점 참 맛있느니라만."

㉤ **"입맛은 이 통에라도 안 변하였소그려."**

- 작자 미상, 「적벽가」

24. [A]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설의적 표현을 통해 발화자의 판단을 강조하고 있다.
② 고사를 활용하여 발화자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③ 의태어를 활용하여 인물의 행동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④ 청자들을 호명하여 주의를 끌면서 발화의 내용을 예고하고 있다.
⑤ 발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생동감을 높이고 있다.

25.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한 군사'는 자신의 처지가 다른 군사들에 비해 낫다고 생각한다.
② '또 한 군사'는 전장에서 공을 세울 수 있다는 확신을 지니고 있다.
③ '아내'는 국가에 대한 책무보다 자신과 가족의 소중함을 앞세우고 있다.
④ '조조'는 전쟁에서의 일시적인 패배를 만회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있다.
⑤ '정욱'은 '조조'에 대한 적대감을 직설적으로 표출하여 '조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2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에 나타난 시대상을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공연 예술로 연행되는 「적벽가」는 조선 후기 청중들의 선호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청중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키기 마련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작품 속 인물과 사건이 조선 후기의 시대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① 자식을 얻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열거된 것을 보니, 다양한 기자(祈子) 풍속이 존재했겠군.
② 자식을 길러 후사를 잇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니, 가문의 대를 잇는 일이 중요하게 여겨졌겠군.
③ 백성들을 갑자기 싸움터로 징발해 가는 것을 보니, 백성들을 국가적 사업에 동원하는 일이 수시로 있었겠군.
④ 징발되어 가는 백성들이 적국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것을 보니, 외세에 대한 비판 의식이 팽배해 있었겠군.
⑤ 군사들은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승상'의 행태가 묘사된 것을 보니, 위정자에 대한 백성들의 반감이 높았겠군.

27.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개인의 일에 얽매어 공동의 목표를 등한시하는 상대의 태도에 동조하고 있다.
② ㉡: 인물의 행동을 과장되게 묘사하여 행동에 포함된 허위를 드러내고 있다.
③ ㉢: 과거의 일을 떠올리며 현재의 부정적 상황에 대한 한탄을 표출하고 있다.
④ ㉣: 인물이 처한 급박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묘사하여 사건 전개에 개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⑤ ㉤: 상황에 대해 집약적으로 논평하여 상대의 처지에 공감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28. [B]와 <보기>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ᄆᆞᅀᆞᆷ이 어린 후(後)니 ᄒᆞᄂᆞᆫ 일이 다 어리다
만중(萬重) 운산(雲山)에 어닉 님 오리마ᄂᆞᆫ
지ᄂᆞᆫ 닙 부는 ᄇᆞ람에 힝혀 긘가 ᄒᆞ노라

- 서경덕

① [B]와 <보기>에서는 모두 감각적 자극이 인물의 반응을 일으키는군.
② [B]와 <보기>에서는 모두 자신이 착각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군.
③ [B]에는 두려움의 정서가, <보기>에는 그리움의 정서가 바탕에 깔려 있군.
④ [B]에서는 상황의 유발 원인이, <보기>에서는 상황에 대한 해석이 먼저 제시되는군.
⑤ [B]에는 상황을 수습하려는 태도가, <보기>에는 상황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가 나타나는군.

[29~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려 시대 문학사에서 하나의 지평을 열었다는 이규보가 만약 조선 시대에 다시 태어나 조선백자를 보았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도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종심소욕 불유구(從心所欲 不踰矩)'란 말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그는 고려청자의 아름다움을 하늘의 조화를 빌려 빚은 '천공술(天工術)'이라고 극찬한 바 있다.

사실 동아시아의 도자 문화사를 들여다보면 ㉠ 고려청자의 위치는 '월드 챔피언' 급에 해당된다. 고려청자는 명성만큼이나 화려하다. 융성했던 고려의 귀족 문화를 그대로 반영한 듯 모양이나 상감된 문양에는 섬세함과 유려함, 거기에 기기묘묘함까지 깃들어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 ㉡ 조선백자도 고려청자에 전혀 밀리지 않을 만큼 아름답고 가치가 높다. 단지, 청자처럼 화려함이 덜해 단번에 눈길을 끌지 못할 뿐이다. 기실, 나뿐만 아니라 조선백자를 고려청자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는 사람은 주변에 많다. 고미술품의 가격이란 것이 미적 가치와 항상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나 역대 크리스티 경매에서 세계의 모든 도자기를 제치고 가장 비싸게 팔린 도자기는 다름 아닌 조선백자였다.

기술력도 고려청자에 필적할 만큼 뛰어나다. 안으로 착 가라앉은 듯 순하고 부드러운 빛깔은 아무나 흉내 낼 수 있는 성질의 기술이 아니다. 또한 조선백자가 품고 있는 내용, 즉 예술성은 어떤 의미에선 고려청자보다 훨씬 높은 경지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단지 내용이 너무 깊다 보니 아름다움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점이 흠 아닌 흠이다.

조선 도자기는 보고 있지 않아도 말없이 옆에서 조용히 기다린다. 성품이 조용하고 점잖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같이 옆에서 지낼 수 있어서 좋다. 조선 도자기는 왜 그토록 수수한 맛이 날까? 물론 이유야 많겠으나 그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평범하게 느껴지는 모양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것에는 어떤 정교함도, 치밀함도 없다. 복잡하고 화려한 형태의 회화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 형태는 단순하고 빛깔은 소박하고 그림은 간단하다. 간단하면서도 짜임새가 있는 경지에 이른 것이 조선 도자기가 지닌 특성 중의 특성이라 할 만하다. 말하자면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는데, 그 아름다움을 '단순미'로 정의한다면 아마도 살아 있는 설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단순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있다. 조선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데 있어 남들이 가 본 적이 없는 길을 걸었다. 즉 단순미를 지향하는 방식이 의외로 특별하다. 평범함이란 무엇인가. 꾸밈이나 거짓이 없고 단순하고 쉬워서 보는 이가 전혀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 개념에 따르면 조선 도자기는 평범함 그 자체가 훌륭한 아름다움이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민족도 많으나 이 같은 표현은 다른 데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른 것을 모방하지 않고, 또 다른 것의 추종을 허락하지 않는 독보적인 세계가 거기에 펼쳐져 있다.

나는 그런 조선 예술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가슴 한 켠이 답답해진다. 우리 중에는 조선 예술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보는 이가 적지 않다는 사실 때문이다. 우리는 어찌 된 일인지, 오히려 그 평범한 점을 들어 미적 요소가 부족한 것으로 스스로 인식한다. 아예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경멸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기까지 한다. 이런 경멸의 태도는 정교하고 섬세한 아름다움을 숭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화되어 있다. 이는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생각은 참으로 독단에 지나지 않는,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의 그릇된 견해에 불과하다. 오랜 세월의 담금질 속에 숙성된 미적 직관을 내면화한 선조들이 빚은 도자기에 어째서 인정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2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재를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종류와 특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② 스스로 묻고 답하는 형식을 활용하여 제재의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③ 다른 대상과의 비교, 대조의 방식으로 제재가 지닌 미학적 특성을 서술하고 있다.
④ 글쓴이의 감상과 주관적 논평을 통해 제재에 대한 일반화된 통념을 비판하고 있다.
⑤ 특정한 인물의 생각을 추측하는 방식으로 제재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30. ㉠과 ㉡을 비교하여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기기묘묘하고 유려하여 하늘의 조화를 빌려 빚은 '천공술'로 불리었다.
② ㉡은 단순미와 평범함을 미학적 자질로 삼는 개성적인 아름다움의 세계를 담고 있다.
③ ㉠은 ㉡과 달리 귀족 문화를 반영한 섬세함과 화려함이 있어 기술력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④ ㉡은 ㉠과 달리 순하고 부드러운 빛깔을 지니고 있고, 예술성의 측면에서 훨씬 높은 경지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⑤ ㉠과 ㉡은 모두 동아시아 도자 문화사에서 기술력이 아주 뛰어난 예술로 손꼽힌다.

31. <보기>는 글쓴이의 글 일부분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에 나타난 예술관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나는 조선의 정치와 예술이 서로 간에 어떤 관계에 놓여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조선의 도자기는 그 기술이 본능으로까지 성숙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것에 재현된 평범함은 생래적인 아름다움이다. 인류가 지향하는 기초적 본질을 거기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다. 거기에 내가 무슨 말을 더 보탤까. 평범한 사람이 평범하게 그릇을 빚었고 평범한 사람이 평범하게 그릇을 보고 평범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내가 무슨 말을 더 보탤까. 내가 여기에 말을 보탠다면 자연으로 다시 돌아온 듯한 단순한 미적 가치는 오히려 퇴색하고 만다.

① 아무나 흉내 낼 수 없는 성질의 기술력을 발휘하여 단순한 미적 가치를 지양해야 한다.
② 사람들의 일상을 담은 평범함의 미학은 다른 것을 모방하는 데에서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③ 복잡하고 화려한 형태의 회화적 요소와 단순한 빛깔이 조화를 이루는 미학적 요인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④ 소박한 그림에 담긴 내용의 깊이가 정치와 예술의 직접적인 연관에서 비롯된 표현 방식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
⑤ 오랜 세월을 거쳐 온 미적 직관의 세계가 보여 주는 단순함에 가장 뛰어난 미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32～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간(人間)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
니것도 보려 ᄒᆞ고 져것도 드르려코
ᄇᆞ람도 혀려 ᄒᆞ고 돌도 마즈려코
봄으란 언제 줍고 고기란 언제 낙고
시비(柴扉)란 뉘 다드며 딘 곳츠란 뉘 쓸려뇨
아춤이 낫브거니 나조히라 슬흘소냐
오ᄂᆞᆯ리 부족(不足)거니 내일(來日)리라 유여(有餘)ᄒᆞ랴
이 뫼히 안즈 보고 져 뫼히 거러 보니
번로(煩勞)ᄒᆞᆫ ᄆᆞᄋᆞᆷ의 ᄇᆞ릴 일리 아조 업다
쉴 ᄉᆞ이 업거든 길히나 젼ᄒᆞ리야
다만 ᄒᆞᆫ 청려장(靑藜杖)이 다 뫼되여 가노ᄆᆡ라
술리 닉어거니 **벗**지라 업슬소냐
블너며 ᄐᆞ이며 혀이며 이아며
온가짓 소릭로 취흥(醉興)을 ᄇᆡ야거니
근심이라 이시며 **시름**이라 브터시랴
누으락 안즈락 구부락 져즈락
을프락 ᄑᆞ람ᄒᆞ락 노혜로 노거니
천지(天地)도 넙고 넙고 일월(日月)도 ᄒᆞᆫ가ᄒᆞ다
희황(羲皇)을 모을너니 니적이야 긔로고야
신선(神仙)이 엇더턴지 이 몸이야 긔로고야
강산풍월(江山風月) 거ᄂᆞᆯ리고 내 백 년(百年)을 다 누리면
악양루(岳陽樓) 상(上)의 이태백(李太白)이 사라 오다
호탕(浩蕩) 정회(情懷)야 이예셔 더홀소냐
이 몸이 이렁 굼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 송순, 「면앙정가」

(나)
산중의 **벗**이 업서 한기(漢紀)를 ᄲᅡ하 두고
만고 인물을 거ᄉᆞ리 혜여ᄒᆞ니
성현도 만ᄏᆞ니와 호걸도 하도 할샤
엇디ᄒᆞᆫ 시운(時運)이 **일락 배락** ᄒᆞ얏ᄂᆞᆫ고
모를 일도 하거니와 ㉠ 애ᄃᆞᆯ옴도 그지업다
기산(箕山)의 늘근 고불 귀ᄂᆞᆫ 엇디 싯돗던고
일표(一瓢)를 ᄲᅥᆯ틴 후의 ㉡ 조장이 ᄀᆞ장 놉다
인심이 ᄂᆞᆺ 갓ᄐᆞ야 보도록 새롭거ᄂᆞᆯ
㉢ 세사(世事)ᄂᆞᆫ 구롬이라 머흐도 머흘시고
엇그제 비즌 **술**이 어도록 니건ᄂᆞ니
잡거니 밀거니 슬ᄏᆞ장 거후로니
ᄆᆞᄋᆞᆷ의 ᄆᆡ친 **시름** 져그나 ᄒᆞ리ᄂᆞ다
거믄고 시욹 언저 풍입송(風入松) 이야고야
손인동 주인인동 ㉣ 다 니저 ᄇᆞ려셔라
장공(長空)의 ᄲᅥᆺᄂᆞᆫ 학이 이 골의 **진선(眞仙)**이라
요대(瑤臺) 월하(月下)의 ㉤ 힝혀 아니 만나신가
손이셔 주인ᄃᆞ려 닐오ᄃᆡ 그ᄃᆡ 긘가 ᄒᆞ노라

– 정철, 「성산별곡」

(다)
백사장(白沙場) 홍료변(紅蓼邊)에 굽니러 먹는 져 빅노(白鷺)야
ᄒᆞᆫ 닙에 두셋 물고 무엇 낫빠 굽니느냐
우리도 구복(口腹)이 웬슈라 굽니러 먹네

– 작자 미상

32. (가)～(다)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에서는 옛 인물을 떠올려 화자 자신과 견주고 있다.
② (나)에서는 동일한 어미와 대구를 활용하여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다.
③ (가)와 (나)에서는 계절감을 지닌 소재들을 활용하여 계절의 변화를 묘사하고 있다.
④ (가)와 (다)에서는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⑤ (나)와 (다)에서는 청자를 명시적으로 나타내어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33. (가), (나)의 시어를 대비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에서는 '술'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반면, (나)에서는 '술'을 통해 근심이 심화된다.
② (가)에서는 '벗'의 존재를 번거롭게 여기는 반면, (나)에서는 '벗'의 부재를 아쉬워한다.
③ (가)의 '시름'은 그 원인이 제시된 반면, (나)의 '시름'은 그 원인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의 '누으락 안즈락'에는 화자의 흥취가 투영된 반면, (나)의 '일락 배락'에는 세상사의 흥망성쇠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투영되어 있다.
⑤ (가)의 '신선'은 화자가 일체감을 느끼는 대상인 반면, (나)의 '진선'은 화자의 불우한 처지를 더욱 부각하는 대상이다.

34. (가)와 <보기>의 화자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빈천(貧賤)을 풀랴 ᄒᆞ고 권문(權門)에 드러가니
침 업슨 흥졍을 뉘 몬져 ᄒᆞ쟈 ᄒᆞ리
강산(江山)과 풍월(風月)을 달나 ᄒᆞ니 그는 그리 못ᄒᆞ리
- 조찬한

① (가)와 달리 <보기>는 자신의 세계관을 타인과 공유하고자 한다.
② <보기>와 달리 (가)는 삶의 공간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③ <보기>와 달리 (가)는 자신의 만족스러운 삶이 임금의 은혜 덕분이라 진술하고 있다.
④ (가)와 <보기>는 모두 자연에 대한 선호를 표출하고 있다.
⑤ (가)와 <보기>는 모두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3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역사적 인물과 사건들에 대한 회한을 표출하고 있다.
② ㉡: 대상의 행위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보이고 있다.
③ ㉢: 세상의 일에 대한 회의적 시선을 내비치고 있다.
④ ㉣: 상대방과 어우러져 일체화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⑤ ㉤: 대상과 재회하고자 하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기>

조선 후기에 들어 시조의 향유층이 확대되면서 작품의 분위기나 표현이 양반 작자층 위주의 조선 전기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일상생활을 담은 표현이 빈번히 쓰였고, 관습적인 의미를 띠었던 소재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기도 하였다. 또한 작품의 내용이 삶의 체험을 다루는 쪽으로 조절되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조선 후기 가집에 수록된 (다)와 같은 작품을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

① '백사장 홍료변'은 고결하고 청정한 공간이기보다는 일상생활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군.
② '굽니러 먹는 져 빅노'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분투하는 생활인의 모습을 띠고 있군.
③ 'ᄒᆞᆫ 닙에 두셋 물고'는 일상적으로 자행되던 탐욕에 대한 묘사이며 당시 세태를 비판하기 위한 표현이군.
④ '우리도'는 대상과 자신의 처지를 동일시함으로써 일상적 삶에 대한 화자의 성찰을 집약하는 표현이군.
⑤ '구복이 웬슈'는 일상생활에서 통용되던 말로 당시 삶의 고달픔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군.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빙하는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데, 가령 남극 지방과 그린란드에는 얼음층인 빙상이 있고 알프스 산맥에는 빙하 계곡이 있다. 빙하의 99퍼센트는 남극 지방과 그린란드에 모여 있으며 빙하에 저장되어 있는 담수는 지구 전체 민물의 4분의 3을 차지할 정도이다. 이러한 빙하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물질은 쌓인 눈이다. 본래 눈에는 다량의 기포가 들어 있는데 눈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기포가 줄어들고 쌓인 눈 내부의 압력은 증가한다. 이때 주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눈은 완전한 얼음으로 변한다. 이러한 변화를 눈의 재결정 작용이라 ⓐ <u>이른다</u>. 눈을 구성하고 있던 물 분자가 압력을 받으면서 협소해진 공간 안에 있던 물의 분자 구조가 재배치되고 그렇게 재결정을 이룬 얼음 입자들이 모여 거대한 얼음층을 형성하면 빙하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흐르는 물에서는 물의 분자 구조가 재배치되기 어려워 빙하가 잘 만들어지지 않으며, 더욱이 유속이 빠를수록 빙하가 생성될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빙하는 한 번 생기면 영원히 그 모습이 유지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빙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눈이 얼음 결정을 이루면서 새 빙하가 생성되는 시기를 집적대, 얼음 결정이 기화 또는 액화되면서 빙하의 규모가 줄어드는 시기를 소모대라 한다. 보통 기후 조건에 따라 빙하의 변동 폭에 차이가 생기며 소모대에 비해 집적대가 확장될 경우 빙하는 성장한다. 반대로 소모대가 더 확장되면 빙하의 규모는 자연히 줄어든다. 오늘날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빙하는 전체 대륙의 1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지만, 150만 년 전에는 그 비율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높았다고 한다. 이후 확장과 축소를 20번 넘게 반복하였으나, 빙하의 전체적인 규모는 점차 줄어들었다.

빙하의 변화를 촉진하는 또 다른 요인은 빙하의 이동이다. 빙하의 무게로 발생하는 압력이 높아지면 빙하의 표면과 지면 사이에 충돌이 격화되고 그 결과 빙하가 이동하게 된다. 빙하는 평균적으로는 1년에 약 10미터씩 서서히 이동하지만 빙하 밑면과 지면 사이의 마찰력에 따라 그 이동 속도가 달라진다. 물을 가득 채운 물병을 냉동실에 넣으면 곧 터질 것처럼 부풀어 오른다. 마찬가지로 얼음 결정으로 부피가 커진 빙하는 내부에 강한 압력을 받게 되고 압력을 버티지 못해 다시 액화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인데 빙하 하단에서 이러한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 같은 액화 현상이 빙하와 지면 사이의 마찰을 줄이면서 빙하의 이동을 가속화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아울러 빙하뿐만 아니라 지면에서도 마찰력을 줄이는 원인이 제공될 수 있다. 가령 빙하 하단에 습기가 많은 연암 퇴적층이 발달해 있다면 빙하의 이동 속도는 빨라진다.

이렇듯이 빙하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빙하가 갈라져 내부에 깊고 좁은 틈이 생기는데, 그러한 균열을 '크레바스(crevasse)'라고 한다. 또 빙하가 붕괴하는 동안 형성되는 탑처럼 생긴 얼음 덩어리를 '빙탑'이라고 부른다. 빙하 내부의 긴장 상태가 최고치에 달하면 빙하는 더 큰 붕괴를 일으키게 된다. 한편 빙하의 이동은 빙하 외부에도 흔적을 남기는데, 빙하는 이동하는 동안 주변 환경을 바꾸는 침식 작용을 한다. 빙하에 의한 침식은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빙하가 이동하면서 기반암을 밀어낸다. 그때 이 거대한 암석 덩어리에 분열이 일어나면서 암석 파편들이 빙하와 합쳐지고 암석 퇴적물이 차곡차곡 쌓이는 퇴석이 일어나는데 가끔 집채만 한 퇴석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또 빙하가 운반하는 크고 작은 암석 퇴적물이 빙하 아래의 기반암을 사포로 긁어내듯 갈아 내는 마식 작용을 한다. 마식 작용을 활발하게 일으키는 빙하는 기반암 위를 이동하는 동안 기반암 표면에 입자가 고른 모래, 즉 석분을 만들며 얼음이 녹아 물이 된 빙하가 이 석분을 먼 곳까지 운반한다. 빙하가 녹은 물이 보통 우유처럼 뿌옇게 흐린 것은 바로 이 석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37.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용어의 개념을 소개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② 특정 현상의 세부적 내용을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다.
③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유추의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④ 동일한 현상을 설명하는 상반된 이론의 특징을 대비하고 있다.
⑤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여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3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지난 150만 년 동안 집적대보다 소모대가 항상 우세하였다.
② 기후 조건에 의해 빙하의 규모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
③ 빙하의 무게가 커져서 압력이 증가하면 빙하가 이동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
④ 빙하의 액화 현상은 마찰력에 변화를 주어 빙하의 이동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⑤ 빙하의 침식 작용은 암석 덩어리를 파편화시키는 것과 기반암을 갈아 내는 것이 있다.

39.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바닷물이 얼어서 빙하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육지에서 눈으로 빙하가 만들어질 때보다 생성 조건이 좀 더 까다롭다. 무엇보다도 바닷물은 그 속에 포함된 염분 때문에 민물에 비해 어는점이 낮다. 같은 바닷물이라도 염분이 높을수록 어는점은 더 낮아진다. 또한 수온이 내려가면 밀도가 높아져 물이 아래로 움직이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데, 대류의 규모는 수위와 비례한다.

① 다른 조건들이 모두 같다면 수위가 낮은 바닷물보다는 높은 바닷물에서 빙하가 생성되기가 좀 더 쉽겠군.
② 얼음 입자들이 생겨야만 빙하가 생성되는데, 바닷물은 어는점이 낮아서 얼음 입자들이 생기는 데 불리하겠군.
③ 다른 조건들이 모두 같다면 염분이 높은 바닷물보다는 낮은 바닷물에서 빙하가 생성되기가 좀 더 쉽겠군.
④ 눈으로 빙하가 생성될 때에는 눈의 무게가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는데, 바다에서는 그러한 눈의 무게가 없어 빙하의 생성이 어렵겠군.
⑤ 물 분자가 압력을 받아 분자 구조가 재배치되어야만 빙하가 생성되는데, 바다에서는 대류 현상 때문에 물 분자가 압력을 받는 데 불리하겠군.

40. 윗글의 ⓐ와 문맥적 의미가 같은 것은?

① 한때 도루묵을 달리 이르게 된 사연이 있었다.
② 형은 동생의 잘못을 이르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③ 길산은 전생이에게 같이 떠날 것을 이르고 있었다.
④ 따끔하게 이르면 다시는 그런 짓을 반복하지 않겠지.
⑤ 옛말에 이르기를 부자는 망해도 삼 년은 간다고 했다.

[41～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타작마당 돌가루 바닥같이 딱딱하게 말라붙은 뜰 한가운데, 어디서 기어들었는지 난데없는 지렁이가 한 마리 만신에 흙고물 칠을 해 가지고 바동바동 굴고 있다. 새까만 개미떼가 물어 뗄 때마다 지렁이는 한층 더 모질게 발버둥질을 한다. 또 어디선지 죽다 남은 듯한 쥐 한 마리가 튀어나오더니 종종걸음으로 마당 복판을 질러서 돌담 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린다.

군데군데 좀구멍이 나서 썩어 가는 기둥이 비뚤어지고, 중풍 든 사람의 입처럼 문조차 돌아가서 — ㉠ 북쪽으로 사정없이 넘어가는 오막살이 앞에는, 다행히 키는 낮아도 해묵은 감나무가 한 주 서 있다. 그러나 그게라야, 모를 낸 이후 비 같은 비 한 방울 구경 못한 무서운 가물에 시달려 그렇지 않아도 쪼그라졌던 ㉡ 고목 잎이 볼모양 없이 배배 틀려서 잘못하면 돌배나무로 알려질 판이다. 그래도 그것이 구십 도가 넘게 쪄 내리는 팔월의 태양을 가리어, 누더기 같으나마 밑둥치에는 제법 넓은 그늘을 지었다. 그걸 다행으로 깔아 둔 낡은 삿자리 위에는 발가벗은 어린애가 파리똥 앉은 얼굴에 땟물을 조르르 흘리며 울어 댄다.

[중략]

노인은 물 불은 콩껍질같이 쪼그라진 눈에 괸 눈물을 뼈다귀 손으로 썩 씻었다. 곁에 누운 손자 놈은 땀국에 쪽 젖어 있다. 노인은 손자 놈의 입이며 콧구멍에 벌떼처럼 모여드는 파리떼를 쫓아 버리면서, 말라붙은 고추를 어루만진다.

"응, 그래, 울지 말아. 자장 자장 우리 애기 …… 네 에미는 왜 여태 오잖을까? 입안이 이렇게 바싹 말랐고나. 그놈의 집에서는 무슨 일을 끼니때도 모르고 시킬꼬 온! 에헴, 에헴……"

노인은 억지힘을 내 가지고, 어린 걸 움켜 안고는 게다리처럼 엉거주춤 벋디디고 일어섰다. 그럴 때, 마침 아들이 볕살에 얼굴을 벌겋게 구어 가지고 들어왔다. 들어서면서부터 퉁명스럽게,

"다들 어딜 갔어요?"

"일 나갔지."

"무슨 일요?"

"진수네 무명밭 매러 간다고 했지, 아마."

들깨는 잠자코 윗통을 훨쩍 벗어서 감나무 가지에 걸쳐놓고는 늙은 아버지로부터 어린것을 받아 안았다. 치삼 노인은 뽕나무 잎이 반이나 넘게 섞인 담배를 장죽에 한 대 피워 물면서 아들을 위로하듯이 — 그러나 ㉢ 대답을 두려워하며 물었다.

"논은 어떻게 돼 가니?"

"어떻게라니요. **인젠 다 틀렸어요. 풀래야 풀물도 없고**, 병아리 오줌만한 봇물도 중들이 죄다 가로막아 넣고, 제에기 ……."

"꼭 기사년 모양 나겠군 그래."

"기사년은 그래도 냇물은 조금 안 있었나요."

"그랬지. ㉣ 지금은 그놈의 수돗바람에 ……"

"그것도 **원래 약속을 할 때는 농사철에는 냇물은 아니 막아 가기로 했다는데**, 제에기, 면장 녀석은 색주가 갈보 놀릴 줄이나 알았지, 어디 백성 죽는 건 알아야죠."

들깨는 열을 바짝 더 냈다.

"할 수 없이 이곳엔 인제 사람 못 살 거여."

"참 아니꼽지요. **더군다나 전과 달라 중놈들까지 덤비는 꼴을 보면 ……**."

아들의 불퉁스러운 어조에는, 거칠 대로 거칠어진 농민의 성미가 뚜렷이 엿보였다. 가물은 그들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하였던 것이다.

치삼 노인은 '중놈'이란 바람에 가슴이 섬뜩하였다. — 그것은, 자기들이 부치고 있는 절논 중에서 제일 물길 좋은 두 마지기가, 자기가 젊었을 때, ㉤ 자손 대대로 복 많이 받고 또 극락 가리라는 중의 꾐에 속아서 그만 불전에 아니 보광사(普光寺)에 시주한 것이기 때문이다. **멀쩡한 자기 논을 괜히 중에게 주어 놓고 꿍꿍 소작을 하게 되고 보니**, 싱겁기도 짝이 없거니와, 딱한 살림에 아들 보기에 여간 미안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 김정한, 「사하촌」

41.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현실에 대한 불평을 토로하는 장면에서 간접적으로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
② 서술자가 인물의 말과 행동에 내재된 심리적 상태를 논평하여 서술하고 있다.
③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대립과 갈등의 현실적 상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공간적 배경을 세밀하게 묘사함으로써 인물이 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서술자가 현실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보고하는 형식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42.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치삼 노인은 일터로 나가 끼니때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며느리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② 치삼 노인은 자신의 과거 행동으로 인해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다.
③ 들깨는 농사를 짓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에 담담히 순응하려는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④ 들깨는 치삼 노인의 물음에 퉁명스럽게 답을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치삼 노인과 들깨는 면장이나 중을 현실의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조력자로 보고 도움을 요청하려 하고 있다.

4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치삼 노인의 가계가 몹시 궁핍한 생활로 기울어져 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② ㉡: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자연의 모습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③ ㉢: 아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 아버지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④ ㉣: 가뭄이라는 자연적 재해 이외의 또 다른 갈등 요인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⑤ ㉤: 자손들이 평안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인물의 심리를 악용한 행태를 비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44. 지렁이와 개미떼의 상징성을 인물에 적용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렁이	개미떼
①	들깨	보광사 중
②	보광사 중	면장
③	면장	치삼 노인
④	보광사 중	들깨
⑤	치삼 노인	들깨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사하촌」은 지독한 가뭄에 농사지을 물길이 막혀 버린 성동리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과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저수지 물길을 막아 제 살 길만을 찾는 보광리 사람들의 대립을 쟁점화한 작품이다. 친일 계급을 등에 업은 사찰과 이를 비호하며 마을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면장과 같은 관리의 행태를 통해, 민중들의 삶의 터전인 농토의 소유와 경작에 대한 갈등이 첨예화된 식민지 현실을 비판적으로 서사화한 것이다.

① "인젠 다 틀렸어요. 풀래야 풀물도 없고"에서 지독한 가뭄에 농사지을 물길이 막혀 버린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이 잘 드러나고 있군.
② "기사년은 그래도 냇물은 조금 안 있었나요."에서 농민들 간의 대립이 첨예화된 현재의 원인과 당시의 상황이 발생한 원인이 같다고 생각하고 있군.
③ "원래 약속을 할 때는 농사철에는 냇물은 아니 막아 가기로 했다는데"서 민중들의 삶터와 생활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대립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④ "더군다나 전과 달라 중놈들까지 덤비는 꼴을 보면 ……"에서 친일 계급을 등에 업은 사찰의 횡포를 짐작할 수 있군.
⑤ "멀쩡한 자기 논을 괜히 중에게 주어 놓고 꿍꿍 소작을 하게 되고 보니"에서 농토의 소유와 경작에 대한 갈등이 초래된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군.

※확인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